

대한민국 전통 상감청자 업장소멸 법률태

세상을 바꾼다!!

영원한 비색, 살아 숨쉬는 청자는 친환경 소재입니다

법률태 유래와 의미

양나라 때 선해대사 부협 현풍으로부터 제작, 대정 17년 고려 명종에 건립, 그리고 티베트 사원에서는 법률태에 경전과 소원을 비는 글을 넣고 돌리면 소원을 이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부처님 일천팔십 분이 별도의 공간없이 수미단 양쪽으로 법률태에 봉안됩니다.
2. 금강경(찬) 수천 수만 권을 복장할 수 있는 새로운 법탁이 디자인되어 법당이 더욱 장엄스럽습니다.
3. 이름과 사진이 함께 양면으로 볼 수 있는 특수케이스가 제작되어 탈부착이 편리합니다. (특허출원)
4. LED의 에메랄드빛 연출로 화려한 반면에 전기요금이 저렴하고 안전합니다. (12V 전압)
5. 전생록(경전)을 참조한 의식임으로 더욱 신심을 북돋아 주고, 실제 경전으로 자신의 전생빛을 소멸합니다.

천년의 숨결로 살아온 상감청자!

그 전통과 자연으로 부처님께 공양합니다.

사찰경제 발원과 불제자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청다향의 마음입니다.

정갈하고 청정한 부처님의 공양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달마사 청오 합장

- 문의 : 덕유산 청다향 055)941-1083 / 010-4595-0017
경남 거창군 고제면 개명리 1156-4 달마사

